

현대 소설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 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머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려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종계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쏘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쏘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쏘아져서 바닷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라! 나무 틈새기에 었던 뿔갱이 솟랭이같이 짹짹 꼬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 집인 중 알고 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려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디 갈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농계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갓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송악시런 맘을 먹으려는 뎡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뎡어.”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혼계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리고 자석이 부모보담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뎡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겨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하게 뎡곤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앉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러운 중도 알아야지.”

“그러.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덜놈 먼침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짙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에 예펜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그려?”

“생각혀 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뎡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중 아는가 분디…….”

“고만덜 혀 뒤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석이 시연혈 티지만 순철이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뎡길 아여.”

문학

수능특강 개념학습 07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내게는 펍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셨대요. 또 우리 큰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사랑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묻겠지요. 그 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 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짹짹 짹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어 들어서면서

“㉡ 어머니, 어머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친네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마는 외삼촌은 가끔 툭툭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상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한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 야, 또 어데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 제길, 남 어데 좀 볼일이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툭툭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짜갔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데 있니?”

“㉤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중략)

“옥희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 어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가 유치원 졸업하구 또 소학교 졸업하구, 또 중학교 졸업하구, 또 대학교 졸업하구, 옥희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응! 옥희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짹 벌리어 보였습니다.

“응 얼마나? 응 그만큼! 언제나 언제나 옥희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러구 공부두 잘하구 그러구 훌륭한 사람이 되구…….”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 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짹 짹 벌리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옥희 엄마는 옥희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옥희 하나면 그만이야. 그렇지, 옥희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기어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 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땀기도 새 땀기를 드려 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것을 꺼내 입혀 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품금 옆에서 새로 다린 하얀 손수건을 내리어 내 손에 쥐여 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 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셨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짹짹 짹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더군요.

나는 어찌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품금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형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형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형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에 선형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 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형의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③만일 선형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형을 희생함이라.** 선형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에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형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놓고 선형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형 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형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자못 울렁울렁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선형도 아직 이렇게 책임 중한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예” 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형의 참 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형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 있게 선형의 눈을 보았다. 선형도 하도 뜻밖에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형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④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⑤형식의 이 질문은 선형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세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형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형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 하라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세요?”

“하루라도 바빠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예?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⑥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선형은 더욱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형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그 말씀이요.”

“왜요?”

“만일 선형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별써 약혼을 했는데두?”

“약혼이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형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저야 선형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형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형을 본다. 선형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뭐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선형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형 씨의 진정으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것도 선형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

[A]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텐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뒀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워 있는 부드러운 사무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벌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①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건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크칠히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형짚이나 메밀껍질로 멍멍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끓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뒀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⑥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⑦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붙겨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⑧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⑨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낯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 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 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뚫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⑩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